

## 태국인 초·중급 학습자가 한국어 연어 관계 습득 과정에서 보이는 유추적 관점\*

크라우머 와니다\*\*

### Abstract

**Krawmoh Wanida.** 2016. 6. 30. **A perspective of Analogy viewed from the Acquisition of Korean Collocations in beginning and intermediate Thai Learners of Korean.** *Bilingual Research* 63, 239-267. The present work observed the course of the acquisition of collocation relations with Thai learners of Korean as the main subject, and experimented with the aim to find how the theory of analogy was reflected in the course of Korean acquisition of elementary and intermediate level learners who were Thai. When language learners study a foreign language, it is common that the language is acquired in chunks in the case of collocation. Thus while the acquisition of syntagmatic relations is crucial in language learning, the present study holds that it is equally important to study the paradigmatic relations of the language at hand in such an acquisition. ideally the chunks, that is, the syntagmatic relations will be acquired first and the stored database of vocabulary will remind the student of individual words once he faces a new and different collocation, but if this is not the case, the student returns to the stage in which the collocation is relearnt and once again stored up. According to the outcomes of the present research, a new task to be addressed is to find how teach the elementary learner to learn the polysemy of predicates, and how to pull the intermediate learner up to the advanced level. To restate, the aim is to find a way to expand the lexicon of learner substantive. (Ewha Womans University)

---

\* 본 논문은 이중언어학회 제33차 전국학술대회에서(2016년 4월 2일)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Key words】** 연어(collocations), 유추(analogy), 확장(extension), 태국인 학습자(Thai speaking Korean Learners), 어휘부(lexicon), 인지적인 위계(cognitive hierarchy)

## 1. 서론

Blevins 외(2009)에서는 인간 정신은 상습적으로 패턴을 추구하며, 이 같은 패턴들은 한 번 찾아진 뒤에는 분류되어 다른 패턴들과 상관성을 맺으며, 또 다른 패턴들, 상호 관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추구는 지각적으로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발견하는 유추적인 추론(analogical reasoning)을 필요로 한다(Blevins 외, 2009:1). 따라서 유추적 관계에 의한 언어 사용자의 인식은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과 상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 4항 유추(four-parts)의 도식화를 통해 유추 관계를 확인해 보자.

<표 1> 4항(four-parts) 유추

A : B	= =	C : D
ㄱ. 열 : 열이 나다	= =	설사 : 설사가 나다
ㄴ. 눈 : 눈을 뜨다	= =	창문 : *창문을 뜨다

<표 1>에서는 A, B, C, D로 분리되는 4항의 유추를 보여 준다. (ㄱ)에서 A항의 ‘열’은 B항에서 동사 ‘나다’와 결합하여 ‘열이 나다’가 되고, C항의 ‘설사’는 D항에서 B항과 마찬가지로 동사 ‘나다’와 결합하여 ‘설사가 나다’가 된다. 이는 생산 가능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ㄴ)에서 A항의 ‘눈’은 B항의 ‘눈을 뜨다’라는 연어를 생산 가능하지만, C항의 ‘창문’은 D항으로 ‘\*창문을 뜨다’라는 연어를 생산하기 어렵다. 이때 연어 형성이 저지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ㄱ)과 같은 형성 과정

은 모국어 화자에게는 당연하며, 외국인 학습자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를 계속 생산하거나 유추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학습자가 (L)에서처럼 지나치게 유추하여 D항의 ‘\*창문을 뜨다’와 같이 실제 없던 단어나 모어 화자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생산하는 생산 과정의 문제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연어 구성은 각 언어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각 언어권마다 발생하는 연어 오류의 대부분은 Bahns(1993:61)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어 학습자의 L1에 의한 영향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1)</sup>.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태국어에서 “우산을 쓰다”라는 연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 우산을 쓰다<sup>2)</sup>

중국어: 打伞

태국어: ka : ŋ rô : m, tʰi : rô : m

(1)에서 “打伞”을 직역하여 표현하면 “우산을 열다”(강서영, 2007:11)인데, 태국어에서 “ka : ŋ rôm” 또는 “tʰi : rô : m”를 직역하여 표현하면 “우산을 열다” 또는 “우산을 들다”이다. 체언 또는 용언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 연어의 특징 중 동족목적어(춤을 추다, 꿈을 꾸다 등) 구성과 착탈동사(신발을 신다, 옷을 입다 등) 구성은 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추(analogy) 이론을 적용하여 연어 관계 습득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전과 사후의 실험을 통해 연어의 계열관계(‘체언’ 또는 ‘용언’)와 결합관계(언어

1) Bahns(1993:61)에서 영어를 대상으로 연어 사용 오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영어의 “run a book shop”에 대한 폴란드어 학습자의 오류는 “\*drive a bookshop” 이었고, 영어의 “pay attention to”에 대한 프랑스어 학습자의 오류는 “\*make attention at”이라고 하였다.

2) 밑줄 친 부분은 각 언어에서 “쓰다”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의 한 덩어리)를 살핌으로써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추 이론은 초급과 중급 단계 학습자의 연어 습득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둘째, 초급과 중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계열 관계와 결합 관계 중 학습을 위한 적절한 방식은 무엇인가?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 어휘 교육과 달리 연어 교육을 유추 이론을 통해 초급과 중급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 2. 연어에 대한 논의 및 연어와 유추(analogy)의 상관성

### 2.1 연어에 대한 논의

우선 한국 내에서 최초로 “연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연어의 사전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논의는 이희자(1995)일 것이다. 이희자(1995)에서는 관용구를 다시 통사, 의미, 그리고 형태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연어를 통사적 연어, 의미적 연어, 그리고 형태적 연어로 구분하였다. 즉, 이희자(1995)에서는 ‘연어’를 크게 보아 일종의 관용구로 설정하였다. 이희자(1995)와 마찬가지로 연어의 사전적 처리에 대해 논의한 연구로는 강현화(1997)이 있다. 강현화(1997)에서는 『연세 한국어사전』(1998)에 나타난 연어를 대상으로 하여 연어의 정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 논의에서도 연어는 크게 관용표현에 포함된다. 강현화(1997)에서는 ‘체언+용언’ 꼴만을 논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빈도를 중요시하였다. 또한, 사전에서 어휘 항목들과 부표제어를 어떻게 기

술해야 할지 연어 유형에 따라 통사적 제약과 의미를 논의하고, 격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강현화(1997)에서는 “연어 사전”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연어 사전의 제작이 시급하다는 암시를 보여 주었다.

연어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에 들어 급증하였다. 연어 논의 중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은 김진해(2000a)라고 할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연어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관용어와 구별하려고 하였으며, 연어를 의미론(semantics)적으로 접근하였다. 김진해(2000a, b)에서 제시한 연어의 가장 큰 특성은 한 요소가 다른 요소를 요구하는 일정한 방향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연어가 가진 또 하나의 특성은 연어의 두 구성 요소가 결합해서 새로운 제3의 의미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 점에서 연어는 관용어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대립관계에 속하는 연어인 ‘눈치가 빠르다’와 대립되는 연어가 ‘\*눈치가 느리다’로 형성되지 않고 이 빈자리가 오히려 ‘눈치가 없다’로 채워진다는 점은 한국어 교육에 적용 가능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본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어를 교육할 때에는 결합관계를 주로 보되, 계열관계를 보지 않거나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과 일치한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각 체언과 용언의 의미를 이해시킬 뿐 아니라 그 체언이나 용언의 다의성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측면에서 연어 연구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논문은 문금현(2002)이다. 문금현(2002)에서는 한국어 교재에 실린 연어 목록을 조사하면서 실제 한국인이 사용하는 연어를 대중매체(시, 소설, 신문, 일상대화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초·중·고급 단계에 따라 제시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연어 학습 방법까지 철저히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연어습득에 관련된 논의는 장미경(2009)에서 이루어졌다. 장미경(2009)에서는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먼저 학습자들을 교포 학습자와 비교포 학습자의 두 그룹

으로 나누고 어휘테스트(세 문장을 주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휘 적기, 빈 칸에 알맞은 어휘 적기, 그리고 밑줄 친 부분 번역하기)를 통해 연어습득의 양상을 관찰하였다. 비교포 학습자의 경우, OPI(Oral Proficiency Interview)<sup>3)</sup> 시험 결과와 TOPIK 점수도 분석 자료에 포함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실험 결과를 정답률과 오류 분석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교포일 경우에는 모국어로 인해 연어변의 선택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으며, 교포일 경우에는 연어의 생산 능력보다 연어의 이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결론을 얻었다. 장미경(2009)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교포 학습자임에도 연어 생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초급 학습자뿐만 아니라 고급 학습자에게도 연어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미경(2009) 이후에도 한국어 학습자들의 연어 습득에 대한 실험과 교육 방안 연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2010년대부터 현재(2016년)까지 연어 연구는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김메리(2010)에서는 모국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미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연어를 연상하는 빈도에 의한 연상 모형(association pattern)<sup>4)</sup>을 제시하였다. 이 연상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의미 기반 연상(Meaning-based association), 둘째, 위치 기반 연상(Position-based association), 마지막으로 형식 기반 연상(Form-based association)이다. 세 가지 연상 모형 중 특히 위치 기반 연상에서는 SV(“머리 아프다”), OV(“음악 듣다”) 등은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보다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연어(“약속 시간, 동네 한바퀴”)의 응답률은 그 반대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어떤 단어 목록

3) 장미경(2009:300)에서 제시한 OPI 시험은 예를 들어 (1) 직업/고향/가족 소개하기, (2) 묘사하기(취미: 한국영화감상), (3) 묘사하기(한국에 대한 인상), (4) 설명하기(미래 희망), (5) 최근사건 이야기하기(김승연 회장의 도덕성 문제) 등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장미경(2009:300)에서 참조.

4) 이 연상 모형은 Fitzpatrick(2006)에서 제시한 모형이다.

을 연어로 보고 실험을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 주술과 목적 관계까지 다 연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 한편 김메리(2010)은 학습자들에게 연어를 가르치는 수업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공통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체언을 예측하는 것({나이} 먹다, 많다, 들다 등), 용언을 예측하는 것({소리, 화, 냄새, 사고 등} 나다) 등은 의미를 갖는 연어 모형(model)이라고 보인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어’와 관련된 논의는 순수언어학에서부터 응용 언어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어 습득과 관련하여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논문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자가 연어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교육 방안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2.2 연어와 유추

단어 형성 과정의 설명 방식은 ‘규칙’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유추(analogy)’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뉜다.<sup>5)</sup> 최형용 외(2015:33)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여 새로운 단어 형성을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유추(analogy)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당신의 어른이날은 언제입니까?

어린이를 도울 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최형용 외, 2015:33)

---

5) 채현식(2003:10)에서는 단어 형성 규칙과 유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단어 형성 규칙, 즉  $X + Y \rightarrow XY$ 이며, 둘째, 유추, 즉  $XY \rightarrow ZY$ 이다. 이와 같이 규칙은 통합 또는 첨가 과정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추는 계열 또는 대치(substitution)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는 유추가 기존 단어들에 기대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은 광고의 일부분인데, 밑줄 친 “어른이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며 “어린이날”에 기반하여 새롭게 형성된 단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이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연어(collocations)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연어는 체언(주로 ‘명사’)과 그 뒤에 붙이는 격조사(생략 가능한 경우와 생략하면 부자연스럽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용언(동사, 형용사, ‘하다’ 동사<sup>6)</sup>, ‘있다/없다’)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연어는 ‘단어(word)’와 ‘단어(word)’로 구성되며, 두 단어의 결합 방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X(체언 하나) + Yn(여러 형태 용언)’, 둘째, ‘Xn(여러 형태 체언) + Y(용언 하나)’, 셋째, ‘X(체언 하나) + Y(용언 하나)’, 넷째, ‘Xn(여러 형태 체언) + Yn(여러 형태 용언)’. 그러나 그 구성에서 자유결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선택제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3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데, 이는 ‘미역국을 먹다(‘시험에 떨어지다’라는 의미)’ 등을 연어에서 제외한 이유이다.

다음의 <표 2>는 본고에서 제시한 연어 목록 중 연어 형성 과정 유형을 적용하여 다시 분류한 것이다.

- 
- 6) 임근석(2010:53~55)에서는 ‘-하다’ 기능동사는 연어변에 의한 선호적 선택에 거의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격하다, 가능하다, 가동하다” 등과 같은 구성은 연어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없고, 중요한 점은 “연어성이 더 높은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세수+하다”, “샤워+하다” 등의 경우, 모국어 화자 입장에서는 간단해 보이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이를 학습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 7) 어휘함수(Lexical Function), 즉 ‘X’와 ‘Y’의 관계는 이미 Mel’čuk(1996)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표 2> 본고에서 제시한 연어의 형성 방향(일부)<sup>8)</sup>

1. X+Y <sup>n</sup>	2. X <sup>n</sup> +Y	3. X + Y	4. X <sup>n</sup> +Y <sup>n</sup>
1)비가 오다/내리다 /그치다 2)열이 나다 /있다 3)돈을 벌다/ 받다/찾다/바꾸다/ 건네다/부치다/아끼다/이 들다 4)머리를 감다/자르다/하다/기르다/풀다/깎다/가 짧다/길다/있다/없다/숙여지다	1)고장이/배탈이/큰일이/시간이/집이/기억이/사고가/신이/여유가/콧물이/땀이/몸살이/불이/자리가/짜증이/피가/틈이/효과가/화가/어름이/갈등이/기운이/냄새가 나다	1)감기에 걸리다 2)노래를 부르다 3)바람이 불다/쐬다 4)사진을 찍다 5)꿈을 꾸다 6)춤을 추다 7)테니스를 치다 8)신경을 쓰다 9)잠을 자다 10)최선을 다하다	1)돈을/말을 바꾸다 /건네다 2)값이/가치가/열이/눈이/시간이/약속이/여유가/인기가/효과가/정신이/건강이/관계가/자리가/기운이/눈이/눈치가/정미/휴가가/흥미가/맛이 있다/없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 참여자

본 논문에서는 태국인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연어 관계 습득에 대해 실시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sup>9)</sup>. 연구 대상자

8) 연어들이 동음이의어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맞다’가 ‘입에 맞다’와 ‘야단을 맞다’, ‘주사를 맞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같은 분류로 나누는 것이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같이 분류하였다. 학습자들에게 실제로 학습시킬 때 각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인다.

9) 강현화(2015)에서는 제1회~제36회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기출문제에 사용된 어휘의 양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숙달도 단계별 어휘량 분석에 따르면 초급과 중급의 어휘 범위는 거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초급”은 “일상생활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어휘”이며, “중급”은 “일상생활에서 보다 확장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어휘”이고, “고급”은 “전문 분야의 업무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 갖추기 위해 필요한 어휘”이라고 하였다(강현화, 2015:13). 이 같은 근거와 수업 자료 선정, 그리고 실험에 제시한 단어 카드에서 주로 빈도가 높은 단어, 즉 전문 분야의 단어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본고의 실험 대상자는 초급과 중급

는 태국 내 A대학교의 태국인 한국어 초·중급 학습자 2, 3학년 각 11명으로, 전체 22명(여성 22명<sup>10</sup>)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 3.2 연구 도구

#### 3.2.1 단어 카드

단어 카드<sup>11</sup>)는 이병규 외(2005)<sup>12</sup>)에 따라 언어 표현 목록을 선택하여 제작하였다. 다만 본고에서는 언어의 부류 중에서 어휘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만을 다루고 문법 언어는 제외하고자 한다<sup>13</sup>).

---

학습자로 제한하였다.

- 10) 태국에서의 A대학교의 2학년 전체 학생 34명 중 남성은 1명이며, 3학년 전체 학생 33명 중 남성은 없기 때문에 실험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 11) 문금현(2002:239~240)에서는 언어 학습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한 가지가 그림카드 또는 단어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단어카드를 활용하여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 인지적인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단어카드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어휘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 12) 자세한 언어 목록은 이병규 외(2005)에서 참조.
- 13) 문법 언어 또는 형태·통사적 언어는 김진해(2000a, b), 문금현(2002), 임근석(2010) 등에서 제시하였듯이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으)르 수 있다, -(으)려고 하다, -(으)ㄴ 것 같다, -(으)ㄴ 만하다” 등 위의 논의들에서 이 구성들은 주로 통사적 기능을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표 3> 본 연구의 단어 카드 목록(14)15)

체언	용언
마음, 열, 감기, 비, 노래, 바람, 사진, 고장, 꿈, 돈, 머리, 춤, 눈, 배, 살, 입, 테니스, 화, 길, 배탈, 신경, 잠, 전화, 최선, 큰일, 키, 쇼팽, 시간, 안내, 자신, 축구, 힘, 걱정, 겁, 곤란, 골프, 구름, 그림, 기억, 꽃, 담배, 낮, 등산, 맛, 몸, 목, 반지, 사고, 산책, 스키, 시험, 신, 야구, 여유, 여행, 요리, 이, 일, 책, 콧물, 계획, 관심, 기침, 나이, 낮잠, 내숭, 농구, 다리, 메모, 단풍, 땀, 말, 명, 몸살, 목욕, 인정, 번개, 불, 세수, 수다, 수영, 숙제, 스트레스, 고집, 안경, 눈치, 야단, 어깨, 음악, 인기, 자리, 절, 줄, 진찰, 짜증, 차, 천등, 코웃음, 탁구, 피, 틈, 한눈, 한잔, 힘, 고개, 기타, 기회, 효과, 흥내, 장갑, 자전거, 유학, 정신, 성격, 소화, 앞머리, 영화, 운, 이름, 칭찬, 가슴, 가치, 갈등, 값, 계단, 건강, 공기, 물, 관계, 교육, 기운, 긴장, 낚시, 냄새, 나이, 노력, 물가, 소개, 수줍음, 숨, 정, 주사, 추위, 더위, 초대, 치료, 휴가, 흥미, 철, 한술밥, 손가락, 모욕	들다, 나다, 걸리다, 부르다, 불다, 찍다, 꾸다, 벌다, 감다, 추다, 오다, 찌다, 빠지다, 맞다, 치다, 내다, 막히다, 자다, 쓰다, 걸다, 받다, 다하다, 크다, 작다, 하다, 끼다, 없다, 있다, 쥐다, 피다, 피우다, 약하다, 새우다, 타다, 보다, 지키다, 가다, 세우다, 먹다, 익다, 마르다, 깎다, 짧다, 길다, 자르다, 남기다, 떨다, 그치다, 내리다, 바꾸다, 팔다, 숙여지다, 돌리다, 세다, 잡다, 채다, 짓다, 그치다, 보다, 서다, 짓다, 붙이다, 충혈되다, 붓다, 아프다, 감상, 나가다, 읽다, 잃어버리다, 설다, 갖다, 건네다, 듣다, 기르다, 밝다, 좋다, 되다, 쌓이다, 풀리다, 풀다, 다들다, 매다, 좋다, 나쁘다, 차리다, 내밀다, 뿌듯하다, 오르다, 끄덕끄덕, 어리다, 말다, 어둡다, 부시다, 기울이다, 빠르다, 아끼다, 부치다, 편하다, 썩다, 차다, 뜨겁다, 쪼다, 당하다

- 14) 이희자(1995:421~428)에서의 의미적 연어와 통사적 연어에 의한 개념에 따르면 의미적 연어는 체언과 용언의 전의에 기초해서 습관적으로 굳어져서 쓰이게 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겁을 먹다, 나이를 먹다 등이 있다. 그리고 통사적 연어는 동사나 형용사와 결합되는 명사형으로서 하나 또는 둘의 낱말발을 형성하는 쓰임이다. 예를 들어 ‘입을 다물다’, ‘눈을 감다’ 등이 있다. 그리고 동족목적어와 같은 ‘춤을 추다’도 통사적 연어에 포함된다. 또한 ‘설을 쇠다’와 같이 목적어를 일정한 명사류로 한정해서만 쓰이는 것도 포함되었다. 그 나머지는 ‘입다’와 관련된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등과 영어의 ‘play’에 해당하는 말들, 즉 ‘옷을 놀다’, ‘피아노를 치다’ 등이 제시되었다. 본고의 연어 목록은 이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
- 15) 이병규 외(2005)에서 제시한 연어 표현 목록이며, 통계적 빈도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가장 고빈도로 나타나는 연어는 “마음에 들다”가 21회이며, 그 다음 순서는 “열이 나다” 10회, 9, 8, 7, 6, 5, 4, 3, 2, 그리고 1회 순서로 나타나는 연어가 있는데, 실험 효과를 위해서 주로 1회로 나타나는 연어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 3.2.2 설문조사

<표 4> 수업 후 사용된 일부 설문조사 방식(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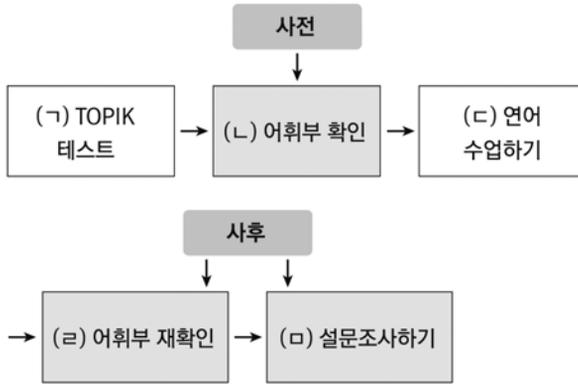
1. 손해를 보다
① 수업 전에 의미를 알고 활용 방법 앎
② 수업 전에 의미를 모르고 활용 방법 모름
【번역 과정: 문맥 파악 도움을 주기 위하여 예시 문장을 함께 제시하였다. 】 예)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판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손해를 보다”의 의미: ( 번역 )

설문조사에서 각 학년에 사용되는 연어는 서로 다르게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초급일 경우는 “겉이 나다”, “시험을 보다”, “얼굴을 치다”, “더위를 타다”, “시간이 가다”, “사랑을 보내다”였다.

중급일 경우는 “새해를 맞다”, “이익을 보다”, “도망을 치다”, “커피를 타다”, “몸매를 가꾸다”, “눈치가 있다”, “머릿이 들다”, “성과를 얻다”였다.

### 3.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수업 전 실험, 수업, 수업 후 실험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실험 전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를 택하여 한국어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수업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수업한 다음에 사후 검사를 하였다. 학습 활동과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각 학년별로 8시간 정도였으며, 실험 기간은 2015년 8월 24일~9월 7일이다. 본 연구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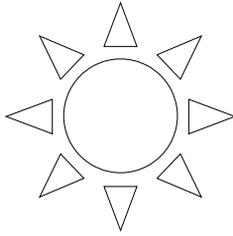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연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ㄱ) 학습자의 해당 등급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테스트(초급 또는 TOPIK I 와 중급 또는 TOPIK II)를 한다.

(ㄴ) 먼저 수업 전 실험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어휘부(lexicon)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즉, 제시한 단어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부에 존재하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수업 전 실험의 목적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해” 그림을 주고 먼저 그림 중간의 동그라미에 주어진 용어를 제시하였다. 그 후 중간의 동그라미 옆의 뾰족한 부분은 빈자리로 두고, 실험자가 단어 카드(체언)를 10초 간격으로 보여 주었다. 연구 참여자는 제시된 체언을 보고 주어진 동그라미 안에 제시된 용언과 사용 가능할지 관찰하게 된다. 이때 용언과 결합 가능한 체언과 불가능한 체언을 번갈아가며 계속 단어 카드를 보여 주었다.



<그림 2> 어휘부 확인 단계

(ㄷ) 수업을 진행할 때 주로 김하수 외(2007) 『한국어 연어 사전(한국어 교육을 위한)』<sup>16)</sup>의 연어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 이 사전에서는 연어에 의한 동음이의어를 제시하고 품사(parts of speech)별로 사용하는 격조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수업 방법은 초급과 중급 학습자 따로 수업하고 연어 자료 PPT (PowerPoint) 중 체언 또는 용언을 각 하나씩의 의미와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어와 태국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합 용언 또는 체언의 의미에 대해 연구 참여자와 함께 그 차이를 발견하며, 태국어의 적절한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 연어 의미를 학습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어와 함께 나타나는 격조사도 같이 강조하며 연습하였다. 예를 들어 “화가 나

16) 본 연구의 수업 자료에 제시된 연어 목록은 “체언 5개”, “용언 18개”인데 총 단어가 266개 연어이다. 김하수 외(2007)에서 제시한 편찬 방침 xii페이지의 연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교사의 어휘 교육과 한국어를 배우는 중·고급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둘째,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제 쓰인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연어 관계를 추출하였다. 셋째, 한국어 학습자들의 어휘 의미 학습과 어휘 관계 파악에 도움을 주고자 관계된 어휘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기준은 품사 분류나 언어 단위 등 언어학의 이론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고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문장에서의 기능과 용법 등 실용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편찬 방침을 근거로 연어 목록을 선정하였다.

다”와 “희를 내다”의 격조사 사용의 차이와 용언 “나다”와 “내다”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표 5> 본고에서 사용된 수업 자료17)의 표본(sample)

<p>결다(동사)</p> <p>【의미: 어떤 사람이나 일에 희망을 품다】</p> <p>N + 결다</p> <p>예) 미래를 ..., 희망을 ...</p> <p>예문)</p> <p>우리나라는 정보 산업에 미래를 <u>걸고 있다</u>.</p>
--

(ㄷ)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는 연구 참여자가 새로운 연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였다. 본 절차에서 다시 (ㄴ)와 같은 방법(단어 카드 사용)으로 실행하였다.

(ㄹ)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어 습득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든 ‘손해를 보다’라는 연어에 의한 어휘부 확장을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수업 전에 그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번역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4장에서 유추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17) 본고에서 제시된 수업 자료 연어 목록은 우선 단어의 난이도가 초·중급 학습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수업 자료가 너무 어려우면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지금 수준의 차이가 나서 학습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쉬우면 중급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록에 중급 학습자도 모를 것 같은 단어, 즉 “가꾸다, 웃음꽃” 등을 포함하였으며, 초급 학습자도 알고 있는 단어, 즉 “가다, 나다, 마음” 등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어떤 단어의 경우 의미상으로 보면 어렵지 않았으나 그 다의성 때문에 어려운 단어도 있었는데, 본고의 연어 목록은 이러한 점들을 철저히 고려해서 만든 것이다.

#### 4. 연어 습득의 유추적 분석 결과

##### 4.1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s)와 인지적인 위계(hierarchy)

Firth(1951)에서 언급된 것처럼 “단어의 의미는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에 의해 파악된다”(Firth 1951, 임근석 2010:29에서 재인용). 본 연구의 실험 설계와 실험 절차는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 유추(analogy) 이론에만 의지하여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론은 실제 결과를 통해 입증되어야 하므로, 우선 연어 습득에 가장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되는 유추 이론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결과가 어떠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들이 연어를 생산하는 데 큰 문제가 없거나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는 사례인 ‘나다’ 용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표 6> 학습자가 연어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나다” 동사와 생산성

학년	사전	사후 <sup>18)</sup>
3 학년	“나다” 용언: 생각(11 <sup>19)</sup> ), 기억(11), 화(11), 사고(11), 땀(11), 고장(11) >> 겁(10), 콧물(10), 냄새(10), 큰일(10), 짜증(10) >> 배탈(9), 피(9), 열(9) >> 불(8) >> 시간(7) >> 기침(6), 틱(6) >> 기운(4) >> 몸살(3), 신(3) >> 흥미(2) >> 자리(1)	“나다” 용언: 겁(11), 코피(11) >> 효과(7) >> 화재(4) >> 재미(3), 소문(3) >> 해결(2)
2 학년	“나다” 용언: 콧물(9), 냄새(9) >> 기억(8), 땀(8), 피(6) >> 시간(5), 생각(5), 사고(5) >> 큰일(4) >> 고장(3) >> 화(2), 불(2), 짜증(2) >> 기회(1), 배탈(1), 겁(1)	“나다” 용언: 시간(11), 화(11) >> 코피(10) >> 고장(7) >> 재미(5) >> 불(2)

18) 사전 실험보다 사후 실험에서 체언을 적게 제시하였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표 6>에서처럼 사전 실험과 사후 실험은 동일한 용언으로 실시하였다. ‘나다’는 여러 용언들 중에서 매우 빈번히 나타나는 동사이다. 3학년은 2학년보다 더 많은 단어를 학습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시된 정도의 연어를 생산하기에 문제가 없으나, 3학년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체언은 주로 고빈도 단어들이었다.

『표준국어대사전』(웹기반)을 인용하면, 3학년 학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나다’ 결합 체언의 의미는 [4] 【...에서/에게서】의 “「4」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와 [5] 【...이】의 “「3」 생각, 기억 따위가 일다”였다.

반면에 2학년 학습자들은 [4] 【...에서/에게서】의 “「3」 소리, 냄새 따위가 밖으로 드러나다”와 “「4」 신체에서 땀, 피, 눈물 따위의 액체 성분이 흐르다”를 가장 먼저 떠올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외국인 학습자들이 항상 계열체가 같은 부류, 즉 의미가 유사한 부류를 연결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2학년에서는 ‘콧물’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했으나, 이와 유사한 의미 부류를 갖는 ‘땀’ 또는 ‘피’의 경우 ‘콧물’이라는 체언만큼 연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후의 실험에서는 사전 실험보다 제시된 체언의 수가 더 적었는데, 이는 사전 실험에서 어휘부 확인 단계를 실험해 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 실험에서는 사전 실험에 이어서 학습자들이 많은 단어를 더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후 실험 결과 3학년의 ‘겁’, 2학년의 ‘시간’, ‘화’, ‘고장’, ‘불’이라는 체언은 이미 사전 실험에 등장했지만, 그중 가장 확장이 어려운 것은 2

---

것처럼 사전 실험에서 이미 학습자의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는 ‘나다’ 연어가 무엇인지 우선 입증하려는 의도를 갖는다. 또한, ‘나다’ 동사는 다양한 의미이므로 학습자들이 더 다양하고 많은 의미를 습득하는지 확인하려고 하였다.  
19) 응답의 횟수를 의미한다.

학년의 ‘불’이었다. 이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표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2학년 학습자들의 경우 아직 이를 입력하기에 힘든 단계라고 보인다.

반면에 3학년에서 ‘효과’, ‘화재’, ‘재미’, ‘소문’ 등과 같은 체언은 사전의 단어보다 빈도가 낮고, 거의 한자어이기 때문에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부터 학습자들이 연어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여기에서는 사후 실험의 결과에만 집중하여 문제를 밝히고자 한다. 앞서 제시된 ‘나다’는 다의성을 가지는 동사이기는 하지만 학습자들이 연어를 생산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용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초급 “잡다” 동사와 중급 “받다” 동사의 생산성<sup>20)</sup>

3학년	“받다” 용언: 선물(11), 월급(11) >> 기회(9), 관심(9) >> 화장(갈)(4) >> 칭찬(3) >> 존경(2) >> 혜택(0), 학위(0)
2학년	“잡다” 용언: 손(11) >> 마음(8) >> 자리(6) >> 기회(2) >> 약속(0)

<표 7>에서 제시된 ‘받다’, ‘잡다’ 등은 용언을 습득할 때 난이도가 낮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용언의 의미와 용법을 알고 있더라도 어떤 체언과 같이 나타나야할지 예측하기 힘들 때가 있다.

3학년 학습자의 경우 ‘받다’ 용언과 연결되는 ‘선물’이나 ‘월급’ 같은 고빈도 연어이면서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들에서는 모든 실험 참여자가 연어 확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나, ‘혜택(0)’과 ‘학위(0)’

20) 초급 학습자와 중급 학습자의 실험 대상 용언이 다른 이유는 단어 카드 중에서 특히 ‘받다’와 결합 가능한 체언은 주로 난이도가 높고 한자어가 많아 2학년 학습자에게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잡다’와 결합 가능한 체언은 3학년 학습자에게 쉬울 것 같다는 판단에서 대상을 따로 설정하였다.

등의 단어는 이와 차이를 보인다.

<표 7>에서 제시된 ‘받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1」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2」 다른 사람이 바치거나 내는 돈이나 물건을 책임 아래 맡아 두다. 「3」 다른 사람이나 대상이 가하는 행동,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당하거나 입다. 「4」 점수나 학위를 따다.” 이때 ‘학위를 받다’와 ‘혜택을 받다’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의 ‘받다[1]’에 속한다. 용언의 의미는 단순하지만 체언 의미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체언+용언” 한 덩어리의 형태로 같이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학년 학습자들은 ‘잡다’ 용언에서 ‘손을 잡다’라는 연어를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기회를 잡다’와 ‘약속을 잡다’와 같이 체언의 의미가 추상적인 경우 연어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더 추상적인 의미를 연상하는 단어이고 모국어와 다른 경우일수록 학습 효과를 위해 학습자에게 더 강조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초·중급 태국인 학습자에게 계열 관계의 장점은 난이도가 낮고 일상생활 어휘일 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 결합 관계의 장점은 난이도가 높고 한자어 또는 전문 용어 어휘일 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태국인 학습자가 투명성, 불투명성, 또는 반투명성을 지닌 연어의 의미를 습득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받다’ 또는 ‘잡다’와 같은 용언은 의미 투명성으로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체언에 의한 인지적인 위계 측면에서 가장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단어는 고빈도 체언, 구체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 그리고 한자어가 아닌 경우임을 확인하였다.

## 4.2 결합관계(syntagmatic relations)와 인지적인 위계(hierarchy)

이 절에서는 결합 관계를 다루므로 실험 결과를 체언과 용언이 결합된 하나의 덩어리로 제시하겠다. 이 부분에서도 사후 실험 결과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표 8> 사후 언어 결합 관계의 인지적 위계

3학년	커피를 타다(11) >> 눈치가 있다(10) >> 도망을 치다(7) >> 몸매를 가꾸다(4), 새해를 맞다(4), 버릇이 들다(3) >> 이익을 보다(1) >> 성과를 얻다(0)
2학년	시험을 보다(11), 시간이 가다(11) >> 겁이 나다(10) >> 사랑을 보내다(9) >> 더위를 타다(8) >> 얼굴을 치다(4)

결합 관계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전에 학습한 계열체의 다의성 습득인 것으로 보인다. 즉, 3학년에서 ‘타다’ 동사의 동음이의어를 학습하여 ‘커피를 타다’로 연어를 확장할 수 있고, 2학년에서도 마찬가지로 ‘타다’ 동사를 먼저 학습하면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더위를 타다’라는 연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년별 결과를 살펴보자.

3학년에서 ‘커피’, ‘눈치’, ‘도망’은 핵심 단어로 보이며, 학습자가 이 같은 핵심 단어를 알면 각각 그 뒤에 오는 용언을 한 덩어리로 보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타다’, ‘있다’, ‘치다’의 의미를 확장해 연어의 생산을 완성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가꾸다’, ‘들다’는 용언의 의미가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결합형 체언의 유사한 형태나 의미와 떨어져서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따라서 ‘몸매를 가꾸다’에서 ‘성과를 얻다’까지의 예를 살펴보았을 때 학습자가 언어 학습에서 체언 또는 용언 하나에만 의지하면 형태 혹은 의미를 습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연어를 결합체로 강

조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학년 학습자들은 수업에서 3학년 학습자보다 많은 연어를 학습하며 빠르게 진도를 나갔다. ‘보다’에서의 ‘시험을 보다’는 체언의 난이도에 문제가 없고 이미 등재된 연어이기 때문에 학습에 지장이 없었고, 3학년 ‘이익을 보다’의 ‘보다’와는 달리 그 의미를 잘 파악하였다.

‘시간이 가다’, ‘겉이 나다’의 경우에도 체언의 난이도가 낮아 유추가 가능하고, ‘사랑을 보내다’의 경우 용언이 체언보다 어려웠지만 다의성을 학습한 다음에 유추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위를 타다’는 체언과 용언 모두 난이도가 높았으나 수업 때 ‘추위를 타다’라는 연어를 배웠기 때문에 사후 실험에서 ‘[Xn -타다]’를 통해 추측이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치다’의 경우 용언의 난이도도 높았고 학습자가 다의성을 학습했더라도 원래 자기에게 익숙한 ‘[테니스/축구/볼링을 치다]’만 연상을 하여 연어를 번역할 때에도 스포츠와 관련된 번역을 한 결과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결합 관계 측면에서는 중급 학습자에게 연어를 하나의 덩어리로 학습시키는 것이 좋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학년 초급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 또는 고빈도 계열체를 더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학습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자기가 접하게 될 새로운 체언 또는 용언을 생산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또 이것은 초급 학습자가 중급 학습자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준비 학습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초급 단계에서는 유추의 틀을 이용하여 의미적으로 유사하거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연어를 학습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예를 들어, “{운동화/구두...}을/를 신다, {등산화/테니스화/축구화...}를 신다(조은영, 2009:61)”처럼 학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유추 이론의 장점이다.

## 4.3 어휘부 확장 정도

여기에서 남은 과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떻게 확장 의미까지 학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부터 사후 실험에서 제시된 연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어의 유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 3학년 어휘부 확장 가능성<sup>21)</sup>

언어 목록	의미 아는지 여부			확장 여부			
	알	모름	무응답	확장 가능	확장 불가능		어휘부 등재 되어 있음
					번역 오류	번역 무응답	
새해를 맞다	18.18	81.81	0	36.36	18.18	45.45	0
이익을 보다	0	81.81	18.18	9.09	9.09	81.81	0
도망을 치다	45.45	54.54	0	63.63	9.09	27.27	0
커피를 타다	81.81	18.18	0	100	0	0	0
몸매를 가꾸다	18.18	72.72	9.09	36.36	0	63.63	0
눈치가 있다	72.72	27.27	0	90.90	9.09	0	0
버릇이 들다	45.45	54.54	0	27.27	45.45	27.27	0
성과를 얻다	0	100	0	0	18.18	81.81	0
평균(%)	35.22	61.35	3.4	45.45	13.63	40.90	0

3학년 태국인 중급 학습자의 분석 결과를 먼저 언급하겠다. 위의 <표 9>에는 실험 연어 8개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색칠된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고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연어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 이후 제시된 연어들의 의미와 활용 방법을 아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서 주로 실험 참여자들은 그전에 본 적이 없는 연어들이라고 일치되는 답을 하였고,

21) 본 절의 결과는 사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것이다.

유추 이론을 통하여 공부한 다음에도 절반 이상, 즉 61.35% 정도가 이 연어들을 모른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이때 확장 가능 여부<sup>22)</sup> 칸을 보면 거의 절반 정도(45.45%)가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어핵 혹은 연어변이 등재되지 않거나 그 둘이 같이 나타나는 자리에서 의미와 용법을 추측할 때 학습자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이익을 보다’와 ‘성과를 얻다’는 문맥을 통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전에 의미와 용법을 몰랐던 ‘커피를 타다’의 경우, ‘타다’의 동음이의어를 학습한 이후에는 난이도가 낮은 체언 ‘커피’와 연상하여 유추하기에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커피를 타다’와 마찬가지로 번역 오류는 없었으나, 어휘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몸매를 가꾸다’가 있다. ‘몸매를 가꾸다’의 경우 번역 무응답이 63.63%로, 이는 어휘부 확장하기 힘든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눈치가 있다’는 번역 무응답은 없었으나, 일부 학습자의 경우 어휘부 확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 모국어로 옮기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수업 상황에서 ‘눈치’만 가지고 의미와 용법을 설명할 때 다른 연어보다 설명하는 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렸고 실제 한국 문화를 이야기하며 상황의 예를 들어야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이해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있다’는 제시된 연어 중 확장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생산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중 번역 오류가 가장 많았던 연어는 ‘버릇이 들다’인데, 그 이유로 용언 즉 ‘들다’에 의한 번역 과정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태국어의 대응의 문제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단어의 경우 ‘들다’에 의한 유추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고 용법도 잘 파악되는 연어인 것으로 보인다.

---

22) 번역 오류가 없거나 의미 또는 활용 방법을 안다고 답한 경우이다.

분석 결과 중에서 ‘성과를 얻다’가 가장 확장하기 힘든 경우였다. 이에 따라 본 단어가 해당하는 수업 자료를 제시하며 반복하여 연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중급 학습자들에게 난이도가 높은 체언을 강조하고 학습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0> 2학년 어휘부 확장 가능성

언어 목록	의미 아는지 여부			확장 여부			
	알	모름	무응답	확장 가능	확장 불가능		어휘부 등재 되어 있음 <sup>23)</sup>
					번역 오류	번역 무응답	
겹이 나다	90.90	9.09	0	54.54	27.27	18.18	0
시험을 보다	100	0	0	0	18.18	0	81.81
얼굴을 치다	36.36	63.63	0	45.45	9.09	45.45	0
더위를 타다	72.72	27.27	0	63.63	9.09	27.27	0
시간이 가다	100	0	0	81.81	18.18	0	0
사랑을 보내다	81.81	18.18	0	90.90	0	9.09	0
평균(%)	80.29	19.69	0	54.54	13.63	16.66	13.63

여기에서는 2학년 태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의 실험 결과를 분석 하겠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앞서 살펴본 중급 학습자와는 달리 유추 이론의 효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추 이론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한 이후, 확장 가능성은 절반에 이르렀다.

대상이 된 6개의 언어 중에서 ‘시험을 보다’만이 이미 실험 참여자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번역 오류이다. 학습자 중에서 18.18% 정도가 ‘시험을 보다’에 대해 번역 오류를 보였는

23) “어휘부 등재되어 있음”이라는 항목은 결합관계로 보는 것이다.

데, 이 부분에서 일부 학습자들이 스스로 이 연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잘못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어의 경우 학습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연어이기 때문에 확장 여부를 따지기가 쉽지 않았다.

6개의 연어 중에서 가장 생산하기 힘든 연어는 ‘얼굴을 치다’였으나, 평균 점수로 보면 확장 가능성은 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치다’ 용언의 다의성을 더 학습시킨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 사후 실험에서 유추를 통해 의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번역 오류의 평균은 13.63%이며, 이는 3학년 학습자의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평균이다. 그러나 번역 오류가 아닌 번역 무응답에 의한 평균은 3학년 학습자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즉,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번역 무응답의 평균은 중급 학습자들보다 낮았으며, 이때 중급 학습자에 비해 연어를 인지적으로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이 가다’와 ‘사랑을 보내다’를 비교했을 때, 전자는 의미를 아는지 여부의 평균이 100%였으나 후자는 그 평균이 그보다 조금 더 적은 81.81%였다. 그런데 확장 가능 여부에서는 오히려 ‘사랑을 보내다’를 학습자들이 더 쉽게 인식하였고, ‘시간이 가다’라는 연어는 번역 오류 문제가 있었다. 이는 실험 참여자가 의미를 이해한다고 답했으나 실제로는 오해였고, 또 모국어와 대응되는 일대일 의미를 찾지 못하여 생긴 문제라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초급 학습자의 경우 유추 이론을 잘 활용하면 원형의미에서부터 확장의미까지 더 쉽게 어휘부에 등재시킬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 5. 결론

본고에서는 유추 이론에 입각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연어 습득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태국인 2학년 초급 학습자

와 3학년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급과 중급의 어휘 확장 가능성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초급에게는 이러한 수업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잘 활용한다면 어휘부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급 학습자에게는 계열 관계의 다의성보다는 난이도가 높고 한자어인 체언을 포함하는 결합체로 된 언어의 학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어떤 경우 모국어 화자는 언어핵인 ‘용언’을 통해서 언어를 인식하였으나 외국인 입장에서는 체언이 언어핵이 되어 체언을 통해 언어 하나의 덩어리의 의미를 판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과를 얻다’에서 체언과 용언은 결합체를 학습하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를 통해 태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아직도 언어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교사의 몫이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언어 교육 방안이 앞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유추 이론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 <참고 문헌>

- 강서영(2007).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적 언어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화(1997). [체언+용언] 꼴의 언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 8권 1호, 191쪽~224쪽.
- 강현화·홍혜란(200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어휘 분석 연구, <사전편찬학> 25호, 7쪽~38쪽.
- 김메리(2010).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연상 패턴과 언어 학습 활동 개발 방안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권, 1쪽~21쪽.
- 김진해(2000a). 『언어(連語)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진해(2000b). 연어의 계열관계 연구, <국어학> 35권, 199쪽~222쪽.
- 김하수 외(2007).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 연어 사전』.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병규 외(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서울: 삼광문화사.
- 이희자(1995). 현대 국어 관용구의 결합 관계 고찰, <대동문화연구> 30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 월인.
- 장미경(2009).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연어습득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39권, 293쪽~316쪽.
- 조은영(2009). 현대국어 어휘적 연어의 형성과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영(2010). 어휘적 연어의 형성과 유추, <한국어학> 48권, 299쪽~331쪽.
- 채현식(2003).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형태론> 5권 1호, 1쪽~21쪽.
- 최형용 외(2015). 『한국어 연구와 유추』. 서울: 역락.
- Bahns, J. (1993). Lexical collocations: a contrastive view, *ELT Journal*, 47-1, Oxford University Press.
- Blevins, J. P. & J. Blevins.(eds.)(2009). *Analogy in Grammar: Form and Acquisi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tzpatrick, T. (2006). Habits and Rabbits: word associations and the L2 lexicon, *EUROSLA Yearbook*.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부록 1>

수업 자료 언어 목록

1. **가꾸다**: ①<sup>24)</sup> 꽃, 나무, 식물, 장미, 채소, 화초 / ② 공원, 꽃밭, 동네, 정원, 집, 앞뜰 / ③ 꿈, 미래, 삶, 희망
2. **가다**: ① 군대, 대학교, 학교, 감옥 / ② 관심, 눈길, 마음, 시선, 정, 호감 / ③ 금, 손상, 진주름, 흠 / ④ 가을, 날, 며칠, 세월, 하루 / ⑤ 시집, 장가 / ⑥ 구경, 낚시, 등산, 산책, 여행, 유학, 출장
3. **감다**: ① 눈 / ② 머리 / ③ 붕대, 실, 테이프
4. **걸다**: ① 간판, 그림, 달력, 옷, 귀걸이 / ② 미래, 희망 / ③ 공중전화, 국제 전화, 전화
5. **걸리다**: ① 간판, 그림, 사진, 광고판 / ② 목, 배, 중간, 허리 / ③ 감기, 눈병, 당뇨병, 병, 압
6. **겁**: ① 겁을 먹다 / ② 겁을 주다
7. **고개**: ① 고개가 아프다 / ② 고개를 끄떡이다, 돌리다, 들다, 숙이다, 흔들다
8. **웃음꽃**: 웃음꽃이 피다, 웃음꽃을 피우다
9. **나다**: ① 가지, 수염, 여드름, 털, 콩 / ② 뉴스, 방송, 광고, 기사 / ③ 검, 신, 실증, 짜증, 구토, 화 / ④ 냄새, 향기, 김, 소리, 연기 / ⑤ 눈물, 땀, 코피, 콧물, 피 / ⑥ 기억, 생각, 정신 / ⑦ 기회, 시간, 틈
10. **눈**: 눈(이) 맑다, 빛나다, 크다, 충혈되다, 눈(을) 감다, 깜박이다, 뜨다, 붙이다 / ② 눈이 나쁘다, 밝다, 어둡다, 좋다 / ③ 눈이 나쁘다, 낮다, 높다, 어둡다, 없다, 있다, 정확하다, 좋다, 흐리다
11. **당하다**: ① 거절, 무시, 배신, 사기, 이용, 죽임, 창피, 피해, 해고 / ② 고통, 곤란, 사고, 어려움, 일
12. **마음**: ① 마음이 곱다, 나쁘다, 넓다, 따뜻하다, 좋다 / ② 마음(이) 급하다, 무겁다, 불안하다, 마음(을) 먹다, 진정하다
13. **막히다**: ① 햇빛, 강물, 교통, 사망, 길 / ② 가슴, 귀, 목, 코, 숨 / ③ 생각, 연구
14. **버리다**: ① 쓰레기, 강(에), 길(에) / ② 버릇, 습관, 시간, 이기심 / ③ 가정, 고향, 나라, 세상, 집 / ④ 일, 직장, 직업 / ⑤ 가족, 남편, 부모, 자식
15. **보내다**: ① 답장, 돈, 선물, 소포, 학비 / ② 여행, 유학, 심부름 / ③ 자식, 시집, 장가 / ④ 감사, 눈길, 미소, 박수 / ⑤ 밤, 방학, 세월, 삶, 주말, 휴가 / ⑥ 남편, 자식

- |  |
|--|
| 16. <b>서다</b> : ① 가운데..., 가장자리에..., 두 발로 ... / ② 주름, 줄 / ③ 물구나무를 서다  |
| 17. <b>안다</b> : ① 가슴(에)..., 품속(에)..., 아기(를), 꽃다발(을) / ② 문제, 부담, 빛  |
| 18. <b>안다</b> : ① 결과, 공감, 교훈, 도움, 허락 / ② 먹이, 시간, 일자리, 자료, 직장 / ③ 돈, 빛 / ④ 100점, 기회, 소득, 자격 / ⑤ 가게, 방, 사무실, 원룸, 집 |
| 19. <b>맞다</b> : ① 정답 / ② 가을, 생일 / ③ 주사, 침  |
| 20. <b>받다</b> : ① 꽃, 편지 / ② 호평   |
| 21. <b>보다</b> : ① 영화, 텔레비전 / ② 면접  |
| 22. <b>치다</b> : ① 공 / ② 볼링, 테니스, 당구  |
| 23. <b>타다</b> : ① 비행기, 배, 말 / ② 계절, 추위   |

크라우머 와니다 (Krawmoh Wanida)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 수료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02-3277-2139

전자우편: waniwanida555@gmail.com

접수일자: 2016년 4월 20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6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6월 15일

---

24) “①”, “②”, “③” 숫자의 의미는 각각 첫 번째의 의미, 두 번째의 의미, 그리고 세 번째의 의미이다.